자료 13 이사회 회의록

理事會 會議錄

2011. 4. 28.

을나 제 4호증

學校法人嘉泉暻園學園

이 사 회 회 의 록

소집통지일자 : 2011년 4월 20일	
이사정수 : 13명	재적이사 : 13명

1. 개 최 일 시 : 2011년 4월 28일(목) 15 : 00

2. 개 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2층위스테리아 룸

3. 참 석 임 원(15명) : (이 사 12명) 김신복(이사장), 이길여, 고홍길, 김병상, 김정치, 박내회, 송석구, 송석형, 이상우, 이태훈, 전용태 하금열 *가나다순
(감 사 3명) 김준석, 김한규, 변봉덕

4. 불 참 임 원(1명) : (이 사 1명) 박영숙

5. 안 건 : 제1호 안건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안)의결의 건
제2호 안건 - 개방감사 선임 의결의 건

6. 회의내용

이사장 김신복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규정에 따라 법인상임이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에 대한 경위 및 성원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개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이후 법인상임이사에게 전차회의록 보고를 요청하다. 회의록 낭독이 끝난 다음, 참석이사들에게 수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을 통과시키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회의록에 간서명할 3인의 임원을 이사장 발의, 송석구이사 동의, 김병상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임원중 박내회이사,송석형이사, 김준석감사를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호선하다.

김신복 의장 : 제1호 안건인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합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 그 심의를 구하고 기획처장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별첨1 : 대학 통합(안)>

기획처장(윤원중) : 대학통합에따른 진행경위, 통합대학의 향후 위상, 주요현황, 지표, 대학 발전계획, 특성화 방향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김정치 이사 : 대학에서 교명 확정시 4개안을 가지고 택일한 것인지와 교명 확정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질의하다.

기획처장(윤원중) : 4개안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대학에서 1차 선정하였으며 교명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송석형 이사 :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기획처장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학교발전을 위해 교명변경이 왜 불가피한지에대해 계속 설명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다.
아울러 이번 대학 통합으로인해 학교발전이 더욱 기대된다는 의견을 부연 설명하다.

기획처장(윤원중) : 통합(안)에대한 교무위원회 심의시 학생들도 참석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가천대학교로 결정하였고 교직원들의 전폭적인 교명변경 지지도 있었음을 설명하다.

김정치 이사 : 학생들이 4개안외에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윤원중) : 따로 없었다고 설명하다.

김한규 감사 : 총장님의 확고한 학교발전 의지와 노력에따라 그동안 우리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대해 감사의견을 표하다. 아울러 이번 대학통합을 통해 우리대학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반도 마련됐다는 의견을 표하다. 다만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의 설득작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표하다.

고홍길 이사 : 동창이나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갈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표하다.

김신복 의장 :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통합 및 교명변경의 당위성에대해 계속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하다.

박내회 이사 : 지난 10년동안 총장님과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을 격려한 후 앞으로도 통합을 통해 명문사학의 반열에 올라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가천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이 포함된 본 통합안에 대해 상정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김정치 이사 : 박내회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김신복 의장 :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음을 알리고 개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1호안건이 상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김신복 의장 : 제2호안건인 학교법인가천경원학원 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정, 그 심의를 구하고 상임이사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별첨2 : 개방감사 추천자 이력서>

상임이사(이상우) : 2011년 6월2일자로 김한규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사중 1명은 개방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의한 제반 추천절차를 모두 거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김한규 현 감사를 개방감사로 추천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사학법 제20조3항에 의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송석형 이사 : 추천된 김한규감사는 모교출신으로 그간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경력등을 고려할 때 학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상정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이태훈 이사 : 송석형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김신복 의장 :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음을 알리고 개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호안건이 상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아울러 금일 임원들의 의견이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참석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설명하다. 이후 오늘의 안건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린 다음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 폐회 16시 0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이사는 아래에 날인하다.

2011년 4월 28일

학 교 법 인　가천경원학원

의 장 겸 이 사 장　김 신 복

이 사 이 길 여

이	사	고 흥 길	
이	사	김 병 상	
이	사	김 정 치	
이	사	박 내 회	
이	사	송 석 구	
이	사	송 석 형	
이	사	이 상 우	
이	사	이 태 훈	
이	사	전 용 태	
이	사	하 금 열	
감	사	김 준 석	
감	사	김 한 규	
감	사	변 봉 덕	

자료 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낸 총동문회 의견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더불어 함께, 스스로 힘으로, 경원사랑의 마음"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아름관 620호 총동문회실

전화 : 031-750-5617 / 홈페이지 : www.kw4u.co.kr / E-mail : kyungwon4u@hanmail.net / 사무총장

문서번호 : 총동문회 11-32

시행일자 : 2011. 5. 4.

경 유 :

수 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 조 : 최윤정 행정사무관

접수	일자	년 월 일	결재·공람		
	시간	: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응 신 기 일 : 2011 년 월 일

제 목 :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 간의 통합에 관한 총동문회 의견의 건

1. 교육과학기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 간의 통합에 대해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3. 승인신청서는 재구성원 즉,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들과 합의 내지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특히 교명변경에 있어서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동문과 학생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시도로 학교측의 일방적 처사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첨부된 교수, 직원의 동의서는 행정조직을 통한 일방적 의사표명이었기에 그 진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6. 동문의 동의서 또한 일부 몇 사람의 의사이고 전체동문의 의사가 아님을 표명합니다. 이에 따른 반대서명을 이번 달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7.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합과 교명변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 방침과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승인절차를 보류하던가, 승인신청서를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총동문회 성명서"

"붙임 2, 교수협의회 성명서"

"붙임 3, 학생 총회 결과" 끝.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규 호

(직인생략)

자료 15. 성남시민 서명받기 - 남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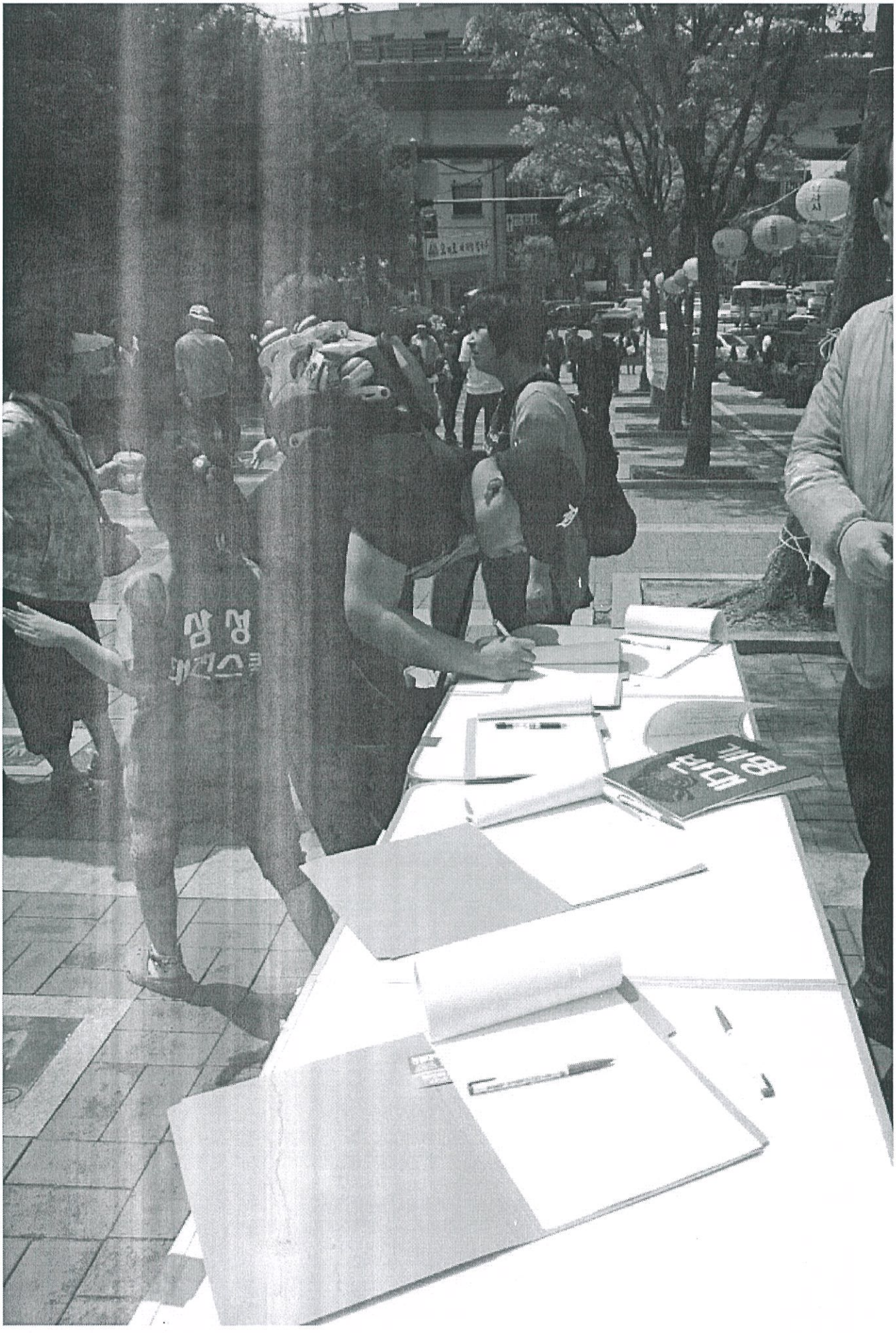
1.통합과정의 비민주적 밀어 붙이기식 절차

대학은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한 지성의 전당입니다.
상아탑인 학원에서 병원 운영하듯이 하는 상상도 못할 독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일을 이길여 총장 한사람의 개인 생각과 그 밑의 줄서기식 순종과 사리사욕으로 밀어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식의 통합은 민주사회의 개념상 있을 수 없는 작태입니다.

2. 통합 진행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 진행 했습니다

3. 통합논의 1년만에 통합을 완료한 부실한 통합입니다

반
성남시민의
경원대학교를
편의점
개명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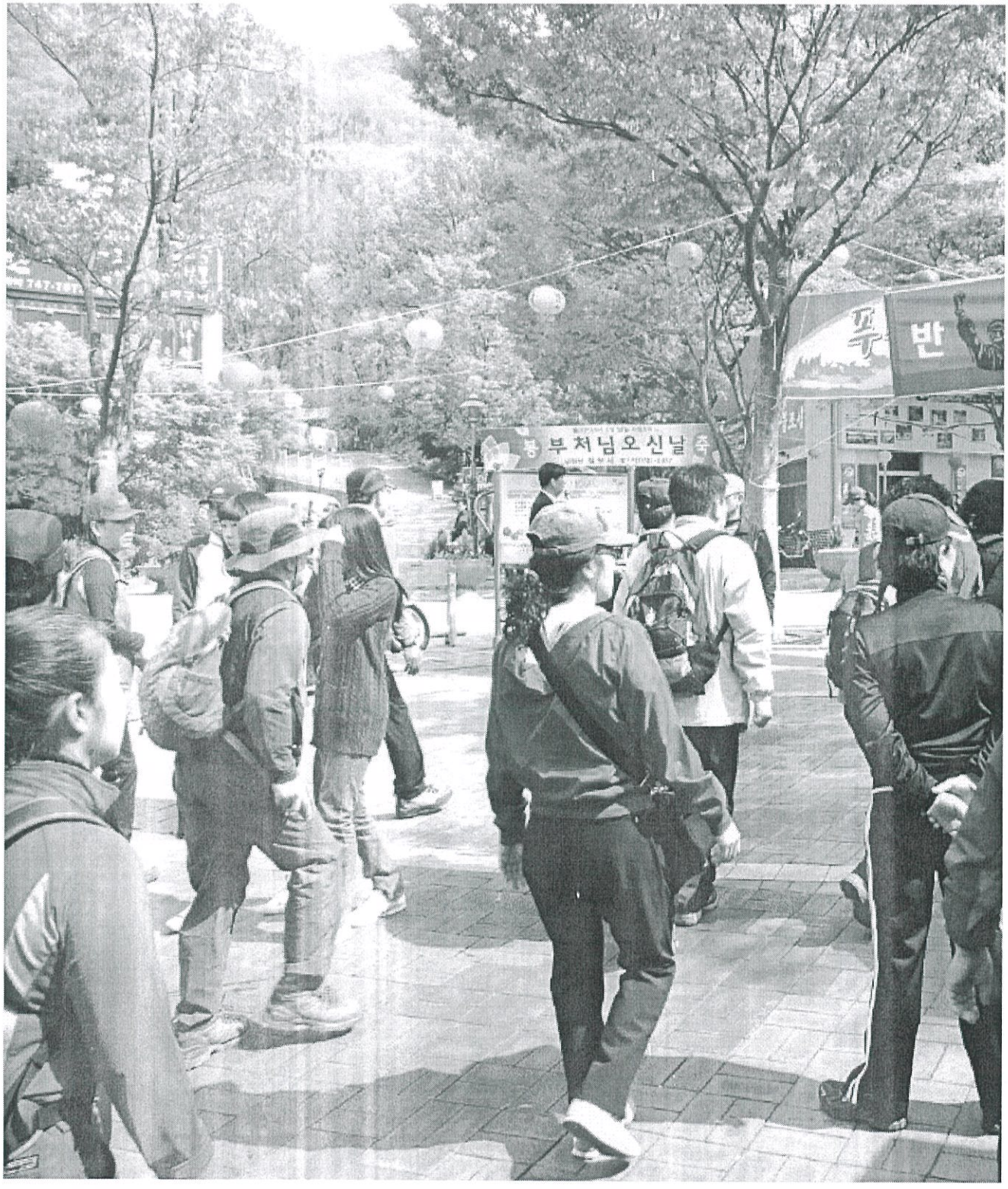


4. 지난 통합4년의 성과가 없는 사이비 통합입니다

그동안 로스쿨이 가능하다고 신입생을 200명씩 뽑아놓고 소원해지자 슬며시 행정학과를 다시 법학대에 편
로스쿨 한다며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듯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재단(학교) 관계자는 각성해(

5. 경원대학교의 자금 이탈 가능성

지난 전문대와의 통합 후 주어진 교과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 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입니다.
경원대는 16,000여명의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재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또한 경원대 발전기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 들였는데 발전기금은 경원대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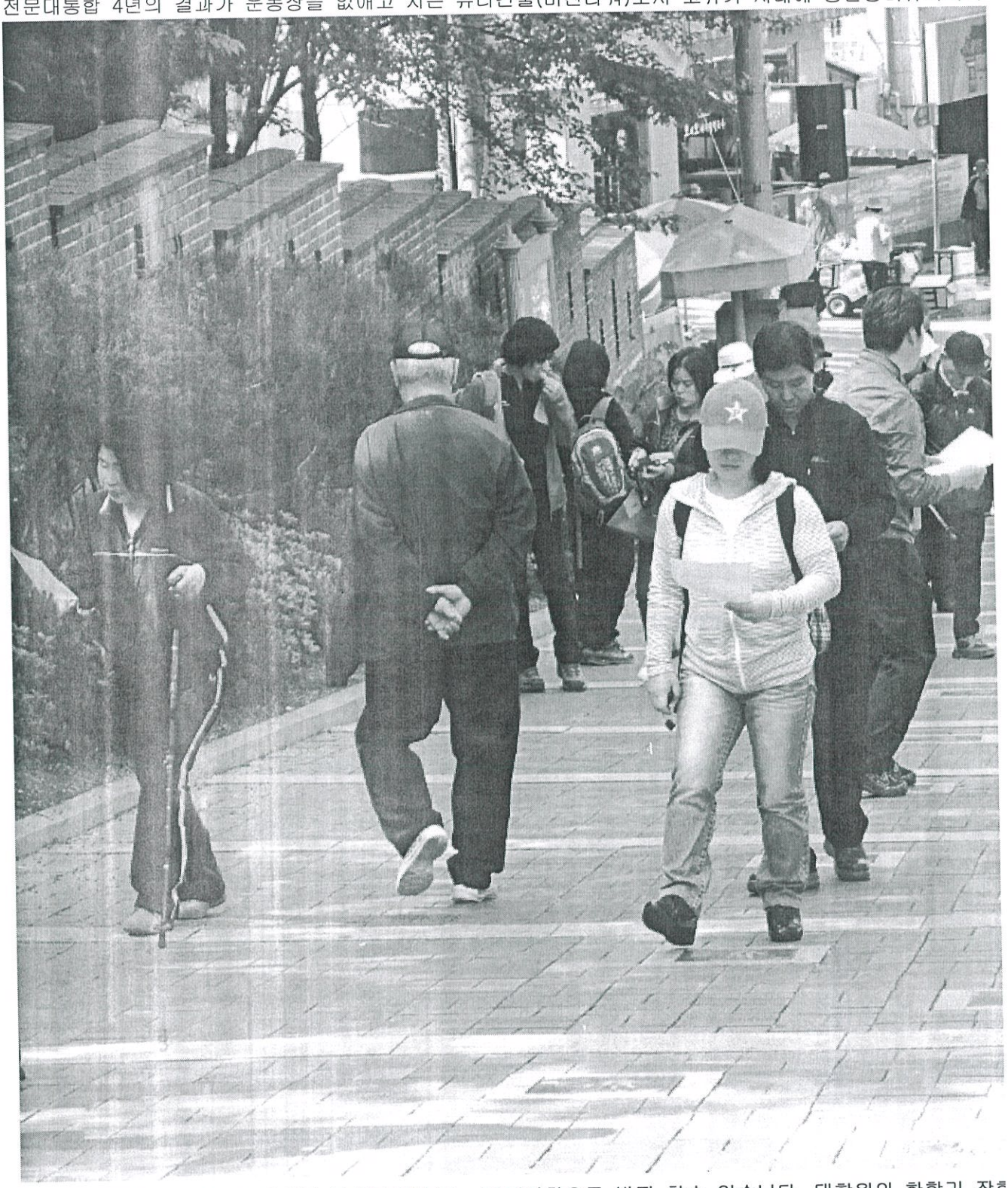


. 사회과학대의 폐지를 반대 합니다

또한 통합을 논하면서 밀실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학사를 찢어놓고 어느날 갑자기 자기가 졸업한 단과대가

7. 통합 후 자꾸 건물만 짓는 이유가 공사를 통한 자금만들기의 의혹이 있는데 해명해야하며 교과부는 ㄹ

건물 몇 개 짓는다고 10대 사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을 원합니다.
전문대통합 4년의 결과가 운동장을 없애고 지은 유리건물(비젼타워)로서 고유가 시대에 냉난방비유지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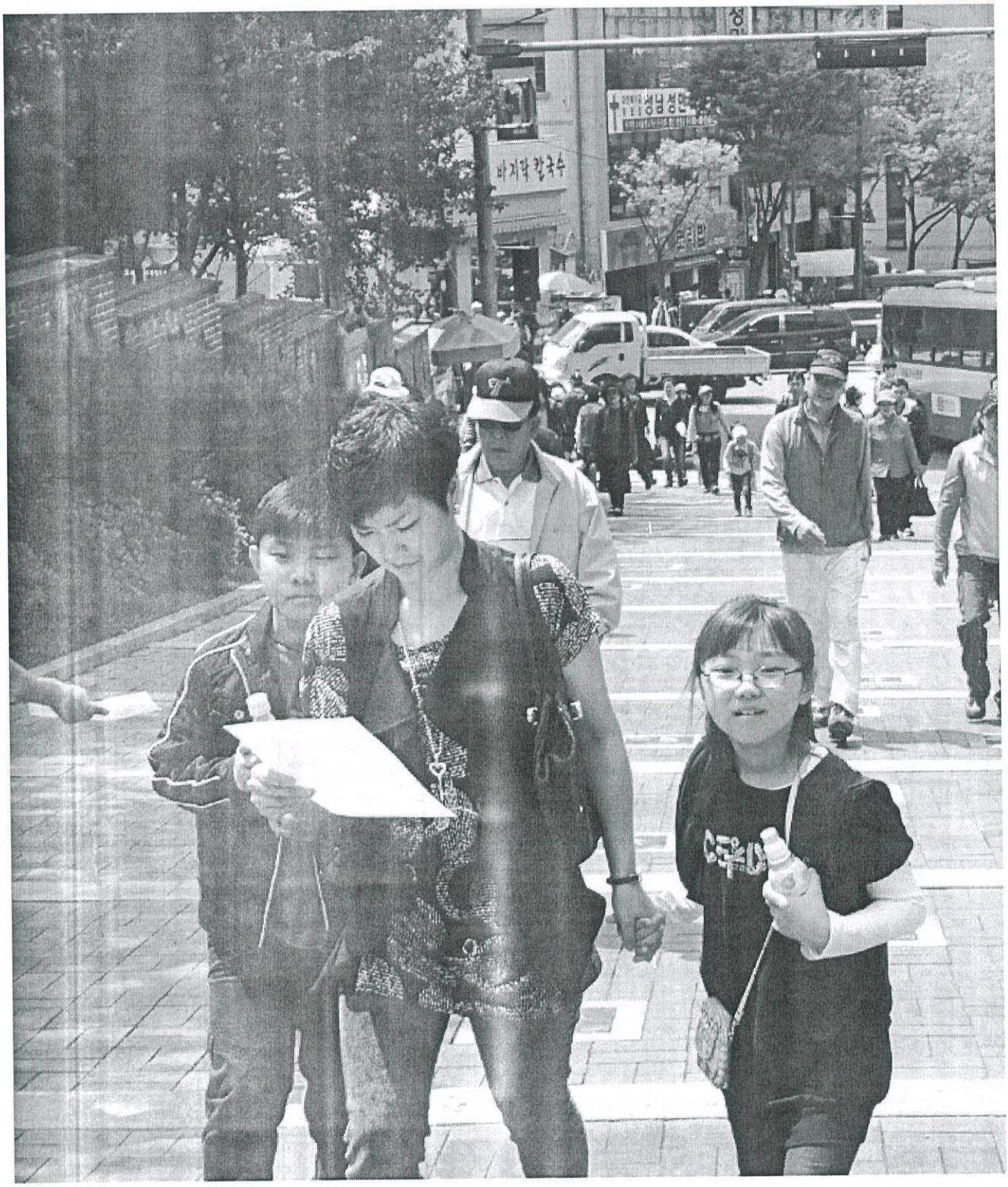
8. 교육철학 없이 병원 운영하듯 몸집불리기로는 10대사학으로 발전 할수 없습니다. 대학원의 한학기 장학

시간강사료는 경원대가 3만1천원인반면 서울소재 대학은 7만원입니다. 학생들의 적립금을 교원들 처우개선
교직원들의 처우와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9. 통합시 경원대의 수백억 적립금은 인천으로 흘러들어갈것이 자명 합니다.

통합시 위 회계가 뒤섞이게 되고 가천 의과학대학은 적립금 한푼도 없는데 경원대 적립금을 마음대로 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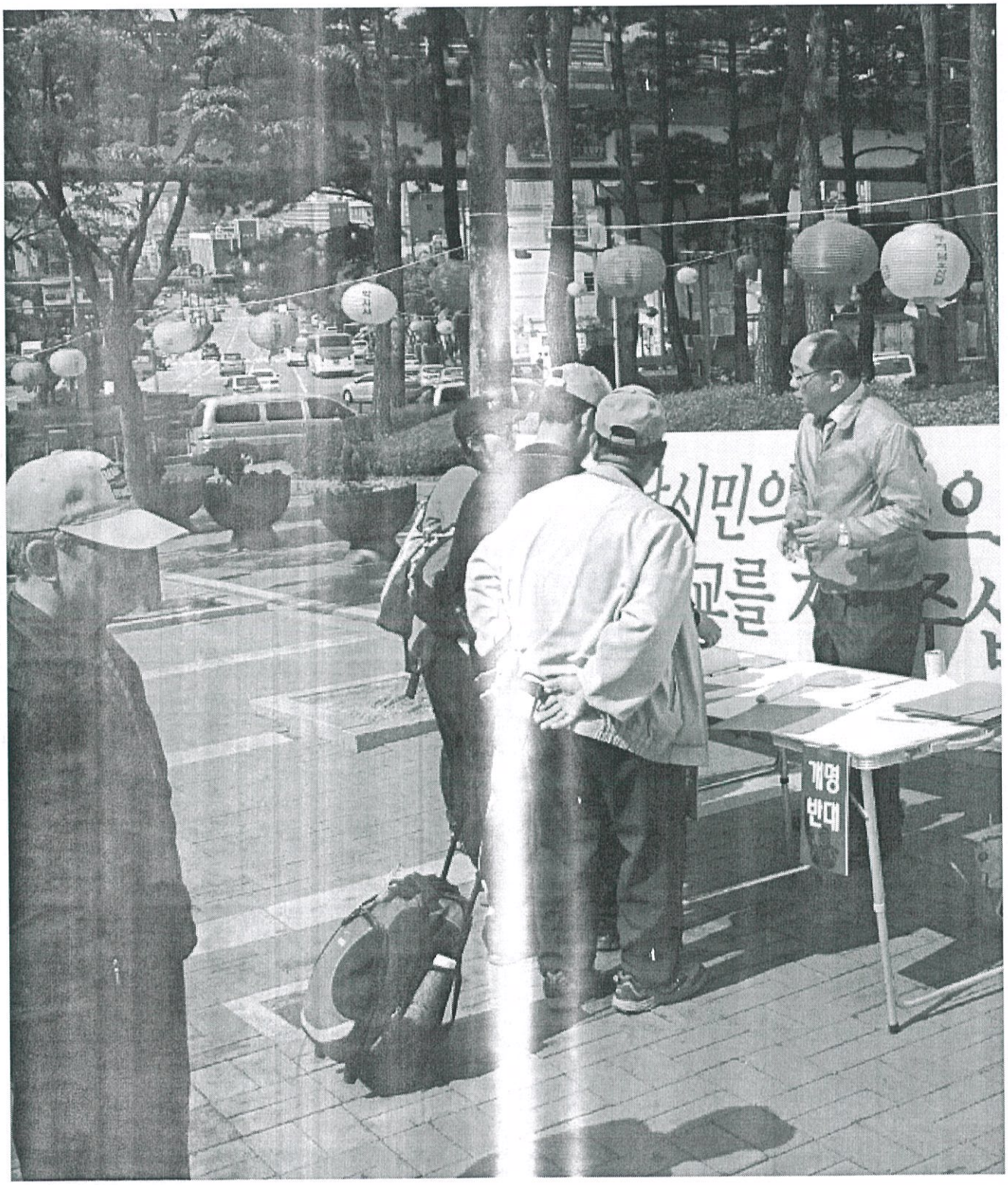
또한 현재 가천대는 25%를 재단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경원대는 거의 없습니다. 통합시 가천대에는 전입금
이러한 회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재단은 통합이 절실할 것이고, 이는 잘 크고 있는 경원대의 씨를 말려



10. 통합하게 되면 발전 하는게 아니라 경원대도 부실해 집니다.

아직도 학교는 통합만 하면 발전한다는 감상적인 논리로 일관 하고 있다. 빨리 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진정 순수하게, 통합을 하면 경원대가 발전하는가?
장기 마스터 플랜상 경원대의 특화는 무엇인가, 왜 인천의 가천대 의료 부문만 집중되어있는가?

대학본부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경원대에 본부를 세웠다고 현혹 하지 마라. 가천의과학대가 클 때 까지 결국 경원대는 임시정부의 역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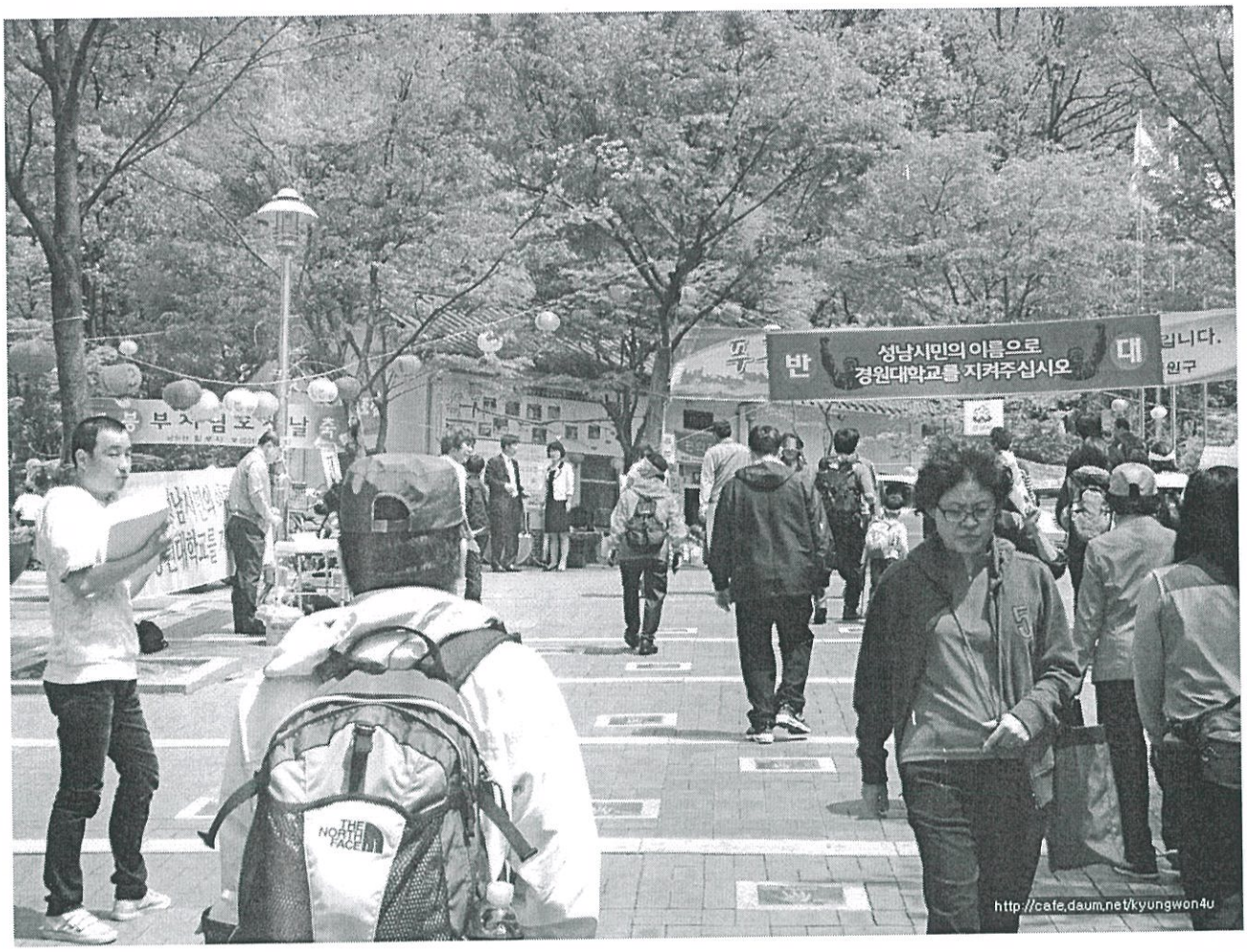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남시민의 이름으로
대학교를 지켜주십시오

10. 통합하게 되면 발전 하는게 아니라 경원대도 부실해 집니

아직도 학교는 통합만 하면 발전한다는 감상적인 논리로 일관 ... 있다. 빨리 이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진정 순수하게, 통합을 하면 경원대가 발전하는가?
장기 마스터 플랜상 경원대의 특화는 무엇인가, 왜 인천의 가천 ... 부문만 집중되어있는가?

대학본부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경원대에 본부를 세웠다고 현혹 하지 마라. 가천의과학대가 클 때 까지 결국 경원대는 임시정부의 역할 부

<출처>
http://www.kwvote.com/page3.asp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경원대학교를 지켜주십시오
http://cafe.daum.net/kyungwon4u